

한국문학 새얼굴... 광주일보 신춘문에 시상식

16일 KT빌딩, '금남로 가는 길' 출판기념회

2014년 광주일보신춘문에 시상식이 16일 오후 5시 광주시 동구 서석동 KT빌딩 3층 세미나실에 열린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소설 부문 당선자 박이수(48)씨에게 상패와 상금 300만원이 수여된다. 시 부문 당선자 배세복(40)씨와 동화 부문 당선자 서귀옥(48)씨에게는 각각 상패와 상금 100만원이 수여된다. 또 올해로 아홉 번째 맞는 광일문학상 수상자인 윤삼현(62)씨에 대한 시상식도 열린다. 시상식에서는

광주일보신춘문에 출품 작가들의 작품을 모은 작품집 '금남로 가는 길' 제17집 출판 기념회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전반적으로 문학이 위축돼가고 있는 상황에서 문학회원들의 활발한 작품활동은 침체된 지역문학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는 평가다. 이번 작품집에는 24명 작가들의 시, 소설, 동시, 동화, 콩트 등이 수록됐다.

한편 2014년 광주일보 신춘문에는 광주일보 신춘문에 사상 2023편이 접수돼 최다 응모 기록을 세웠다. 문의 010-4137-1552.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靑馬의 비상'

신년특선전, 15일~2월5일 은암미술관



강일호 작 '판도라의 상자'

청마(靑馬)는 한낮의 가장 뜨거운 기운을 가졌으며, 1년 중 가장 뜨거운 여름을 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가장 역동적이고 활발한 에너지를 전해주는 동시에 온순하고 움직임이 빨라 태양, 성공, 선구자, 장수, 강인함을 상징한다.

60년 만에 찾아온 청마의 해를 맞아 말(馬)을 회화와 조각 등으로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은암미술관은 1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신년특선전 '청마(靑馬)의 비상'전을 개최한다.

전시에는 허진·황순철·김순식·강일호·김영란·김영화·백종휘씨 등 7명이 초대됐다. 허진 교수의 작품 속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말은 물리·심리적 경계와 무경계를 넘나들며 방랑과 정착을 거듭하는 현대인의 역동성을 반영한다.

김순식씨의 도자와 회화를 접목한 작품, 백종휘씨의 조각, 황순철·강일호·김영화·김영란씨의 회화 등을 전시에서 감상할 수 있다. 문의 062-231-5299.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광주전남작가회의 작품집 '작가' 발간

기획특집 '5월문학과 문학관'

광주전남작가회의(회장 조진태) 작품집 '작가'(통권 19호·심미안·사진)가 발간됐다.

기획특집으로 다룬 '5월문학과 문학관'에서는 5월문학에 대한 심도 있는 평가와 함께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지향하는 광주에서 문학관의 성격과 방향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조망한다.

정경은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는 '아시아문화도시 광주에서 문학관의 의미와 성격'을 주제로 문학관의 가치와 철학 등을 다각도로 진단하고, 문화평론가 강형철(송의여대 문예창작과) 교수는 "5월문학총서"로 본 5월문학의 의미와 콘텐츠로서의 전망"에서 5월문학의 콘텐츠화 가능성에 대해 분석한다.

다른 기획특집 '광주 그리고 문학' 좌담회에서는 김용태 소설가, 이원화 소설가, 황영철 시인이 2013년 지역문학 결산과 아울러 광주에서 작가로 살아가는 현실에 대한 소회를 담담하게 들려준다.

'회원과의 만남' 코너에서는 2009년 늦깎이로 문단에 나와 시낭송모임 '비타포엠' 회장을 맡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의사 시인 김완씨를 만나 시작활동과 근황을 들었다. 이밖에 고영서 시인 등 43명 회원들의 시, 손성훈 작가 등 4명의 소설, 김성범 동화작가의 에세이 등 회원들의 다양한 작품이 실려 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시민들 삶속에 녹아들어가는 연주회 열 것"

이현세 광주시향 지휘자

- ▲1960년 서울 출생
- ▲서울대 음악대학 기악과 졸업
- ▲미국 클리블랜드 음악원(바이올린) 석·박사
- ▲일리노이 대학원·미시간 주립대학원 지휘과
- ▲이스턴 일리노이 주립대 바이올린 교수
- ▲미시간 그랜드밸리 주립대 지휘 교수
- ▲대구시립교향악단, 경북도립교향악단, 포항시립교향악단 상임 지휘자 역임
- ▲대구가톨릭대 교수



지휘자 문제로 몸살을 앓았던 광주시립교향악단이 새로운 수장을 맞았다. 지난 7일 위촉장을 받은 이현세(54·대구 가톨릭대 교수) 상임지휘자를 9일 광주시향 지휘자실에서 만났다. 서울 출신인 그는 미국에서 바이올린, 지휘과 교수를 역임한 후 대구시향, 경북도립교향악단, 포항시립교향악단을 거쳐 이번에 광주시향을 맡게 됐다. 아무 연구가 없는 광주의 멧개 된 새로운 인연에 대해 그는 기대가 많다고 했다. 나즈막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건네는 그에게는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느껴졌다.

음악적 역량 발휘, 단원들과 소통

바이올리니스트서 지휘자로 전향

우연찮게도 그가 2012년 포항시향을 맡게 될 때 상황이 광주시향의 상황과 유사했다. 또 포항시향과의 계약을 7개월 남겨둔 시점에서 광주행을 택한 탓에 부담도 컸다.

"악속을 어기는 문제여서 광주시의 제안을 받고 생각이 많았다. 5년전 광주시향을 객원 지휘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연주자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었다. 광주를 예행이라고 하지 않나. 문화의 중심이 되는 도시에서 새로운 꿈을 펼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리 저리 말해도 결국은 이기적인 마음, 개인 욕심에 따른 선택이다. 포항 시향 단원들에게는 평생 안고 가야할 빛이다."

그는 단원들과의 공감과 소통을 강조했다. "음악은 기술과 기교로만 이뤄지는 게 아니다. 물론 테크닉이 바탕이 되어야하겠지만 무엇보다 마음의 감정을 표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진솔한 표현은 마음을 담으면 나올 수 없다. 그런 연주는 청중이 금방 알아본다. 서로 마음을 열어가는 게 중요하다. 교향악단은 살아있는 생물이다. 공산품처럼 부속품에 문제가 있다고 갈아 끼울 수 없다. 상처가 나면 그 상처가 아물 때까지 기다리는 게 필요하다. 지휘자가 음악적 역량을 발휘해서 이끄는 게 우선되어야함은 물론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단원들과 서로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

이 지휘자는 상반기 연주 일정을 확정했다. 광주시향의 특징을 파악해 가면서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줄일 수 있는 레퍼토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광주시향은 광주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단체다. 지역 문화를 풍성하게 하는 데 힘을 쏟는 건 당연하다. 시향 단원들이 봉급도 적고 근무 조건도 열악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선택받은 것도 사실이다. 정기 연주회 뿐 아니라 사람들의 삶속에 녹아들어가는 연주회를

통해 시민들에게 다가가겠다. 소외계층,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한 이벤트도 구상중이다. 아랫 세대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클래식 미래는 없다."

취임 연주회는 2월 14일이다. 엘가의 '수수께끼 변주곡'을 메인 곡으로 잡았다. 바이올리니스트 권혁주는 시벨리우스 협주곡을 협연한다. 무엇보다 반가운 소식은 서울 예술의전당이 주최하는 교향악 축제 참가다. 광주시향은 지난 2008년 이후 6년 동안 축제에 참가하지 않았었다. 드보르작 '교향곡 8번'을 연주하며 서울 공연(4월 14일) 전 광주에서 똑같은 레퍼토리로 시민들을 만난다.

다양한 협연자도 눈에 띈다. 미국 대학에서 이 지휘자와 함께 교수로 재직했던 이스라엘 피아니스트 아비람 라이 케르트(서울대 교수)가 라흐마니노프 '피아노협주곡 2번'을 협연하며 첼리스트 김민지도 시향과 호흡을 맞춘다.

이 지휘자는 바이올리니스트에서 지휘자로 전향한 케이스다. 초등학교 1학년 때 바이올린을 시작한 그는 미국 이스턴 일리노이 주립대학 바이올린 교수 시절 손가락 신경에 문제가 생기면서 바이올린을 접어야했고 본격적으로 지휘 공부를 시작했다.

그의 든든한 파트너는 바이올리니스트인 아내 이승희(53)씨다. 서울대 1년 후배인 이승희씨는 한양대에 출강하며 미국 미시간 랜싱시립 교향악단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아직 둘 다 철이안들어서 서로 돌봐줘야하는 사이"라 아이는 없다. 건축과 디자인에 관심이 많은 그는 요리하는 것도 좋아한다.

2월14일 취임연주회... 권혁주 협연

6년만에 서울 교향악축제 참가

"다른 모든 게 그렇지만 음악은 누가 시켜서 하면 재미가 없다. 단원들이 능동적으로 연주할 수 있는 분위기가 필요하다. 음악적 아이디어를 내고 단원들의 영감이 연주에서 지속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이끄는 게 지휘자의 역할이다. 단원들 역시 책임감을 키우는 게 필요하다. 임기 안에 너무 많은 것을 이루려고 하면 무리수가 따르기 마련이다. 단원들이 수동적이지 아니라 각자 주인이 돼 연주하는 분위기를 만들겠다. 그 길로 가는 문을 활짝 열어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저 쪽에 그 문이 있다고 알려주는 역할만이라도 하고 싶다. 오케스트라에서 중요한 건 앙상블이고, 그 앙상블의 핵심은 배려다."

/김민기자 mekim@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since 1982

창업 32주년 국제보청기

www.kjhr.com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본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보약, 흥삼은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
·마음에 평안
·음식조절입니다

건강한 생활! 장수의 비결!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흥삼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흥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 062-369-9227

두충오가피
활기찬 삶! 생활의 활력소!
60포 → 120,000원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